

여야 '양곡관리법 개정안' 충돌

쌀 시장격리 의무화법...본회의 직회부 의결된 법안 다시 법사위로 국힘 "민주당 단독 의결 절차상 하자"... 민주, 의사진행·토론 반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는 격돌했다.

양곡관리법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함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런 야당의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시켰다.

해당 법이 상임위에서 직회부 요구가 의결된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상 법사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도.

그러나 이미 본회의 부의 절차에 부처진 양곡관리법이 법사위에서 재논의 될 상황에 직면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진행 발언과 법안 토론 등에서 격렬히 반발했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지금 본회의 부의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왜 지금에 와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해 토론을 하지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은 "법사위가 고유의 체계

자구 심사 역할에만 집중하면서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을 잡고 있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 2021년 국회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오늘 법사위의 양곡관리법 직권상정은 국회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에 대한 농해수위 논의-의결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내용상 문제 있는 법인데다, 민주당 단독 의결이라는 절차상 하자까지 있다는 것이다.

해당 법을 이날 전체회의에 직권상정한 김도읍 위원장은 "쌀값을 안정시키려면 생산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즉 작물 전환이 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개정안은 작물 전환 시 정부가 또 지원해준다고 되어 있어 큰 모순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재명 "尹정권, 대일 저자세 외교 점입가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 진단과 과제'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檢 '위례·대장동 의혹' 이재명 소환 통보

'민간업자에 편의 제공' 의혹 등...민주당 지도부, 출석 여부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로부터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 오는 27일 출석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 10일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은 지 7년 만이다. 이에 따라 민생 이슈로 사법리스크를 돌파하려던 이 대표의 전략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이 대표에게 배임,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27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천40억 원의 막대한 수

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측근들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개발 수익 중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도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3년 위례 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정진상 당시 비서관 등이 성남시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미리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도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혐의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이 대표는 당 지도부와 검찰 출석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소환이 이 대표 망신주기가

자 야당 탄압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그동안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두고 '성공적인 공공 환수 사례'였고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핵심 측근들이 각종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이 대표의 주장이 상당 부분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 조사를 마친 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함께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는 등 정치권이 요동칠 전망이다.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가 현실화된다면 이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이던 현재 국회 회기 중이어서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이 과반 이상을 차지한 현재 국회 지형상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정국 주도권 잡기

이재명 신년회견 후속조치...기본사회위·개헌특위 등 신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당내 기본사회위원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경제안보센터 등 3개 특위 구성 안건을 의결했다. 이들 특위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것이다.

기본사회위는 이 대표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기본주거·기본금융 등을 구체화하는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한다.

위원장인 이 대표가 직접 맡으며, 수석부위원장은 4선 우원식 의원이 선임됐다.

개헌특위는 이 대표가 언급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포함한 민주당의 자체 개헌안을 만들 예정이다.

자체 개헌안 제출의 목표 시점을 올해 3월로 제시한 바 있다. 개헌특위 위원장은 4선 윤호중 의원

이 맡는다.

경제안보센터는 이 대표가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포함한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을 정부에 제안하면서 당내에 설치하겠다고 밝힌 실시간 대응 기구다. 센터장은 김성한 정책위의장이 겸임한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신년 회견에서 밝힌 여러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며 "각각 기구 성격에 맞게 계획을 세워 구체적인 활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사회위원장을 이 대표가 맡은 것은 직접 책임지고 비전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정책위나 민주연구원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선거제도 개혁' 5당 의원들 한 뜻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여야 70여명 참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5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16일 뜻을 올리고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운영모임을 열고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모임에는 여야 중진 의원 9명을 포함해 약 70명의 여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현재 정치제도가 망국적인 제도"라며 "당리당락을 내려놓고, 국민과 미래를 내다보면서 초당적으로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정치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정·완화하고, 국민을 통합해야 하는 데 반대로 가고 있다"며 "나의 유불리나 정당·정파의 유불리를 넘어 국민만 생각하며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선거제 개혁을 이뤄내려면 '하드캐리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정당 간 유불리와 권력 간 이해관계를 공정하고 밀도 있게 조정해내는 어려운 과정을 끌어낼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종배, 정성호, 심상정 의원 등은 모두 모임의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김상훈-이종배-조해진-이용호, 민주당 김상희-정성호-민홍철-전해철,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여야 중진 의원 9명은 지난 9일 정치개혁 필요성을 역설하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제안한 바 있다.

여기에 여야 의원 52명이 동참을 선언하면서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이 꾸려졌다. 이들은 의원들의 참여를 설득해 모임의 규모를 늘리고, 선거제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참여하실 분들에게 (모임을) 열어놓고, 그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모임은 오는 30일 공식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연초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을 역설한 터여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 행보가 정치개혁 동력에 힘을 실을 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이광재 "국회 예결산 심사기능 강화"

국회 사무총장 신년 기자간담회

국회는 16일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의결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 예결산 심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예산 심의에서도 꼼꼼이 과정이 있는데, 이런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출한 법안은 정부 예산 편성 단계별로 국회에 정보를 알게

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것"이라며 "편성권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의견 개진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국회의 의견을 듣게 해 의회가 예산 편성 과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 사무총장은 또 "정치개혁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특정 지역에 특정 정당이 많이 당선되거나 너무 많은 사표가 생기는 선거 시스템은 바꿔야 한다. 다당제의 기초를 만드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h3>전원주택 (1채) → 7,000만</h3> <p>(토지 분양 중) 장성담 5분, 광주 20분, (6M도로 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컨하우스 ② 소형 주택 ③ 전기,수도,배수 완비 ④ 주말 하우스 최고 ⑤ 잔디,나무,일체 포함 <p>★ 토지분양 → 전원주택 토지 (100평, 150평, 200평)</p>	<h3>상가매매(상무지구)</h3> <p>(매매, 임대) 권리금 없음</p> <p>▶ 중심 상업지구 (유형 적합)</p> <p>(6층, 7층) = 140평</p> <p>시세 → 10억</p> <p>➔ 급매 7억</p> <p>보3천 월 380만 (용 4억5천)</p>	<h3>경매교육 [특수 전문반]</h3> <p>[기초반, 중급반]</p> <p>*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p>▶ 경매 물건 추천 ◀</p>								
<table border="1"> <tr> <td>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평가 3억9천 → 최저가 2억7천</td> </tr> <tr> <td>광산구 하남동 (근린상가) ▶ 감평가 62억 → 최저가 35억</td> </tr> <tr> <td>서구 화정동 (주택) ▶ 감평가 1억9천만 → 최저가 1억2천</td> </tr> <tr> <td>광산구 박호동 (주택) ▶ 감평가 4억4천 → 최저가 3억</td> </tr> <tr> <td>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평가 36억 → 최저가 16억</td> </tr> <tr> <td>장성 동학면 (과수원) ▶ 감평가 8억2천 → 최저가 5억7천</td> </tr> <tr> <td>나주 빛가람동 (식자재마트) ▶ 감평가 54억 → 최저가 30억</td> </tr> <tr> <td>김제시 하동 (아파트 293세대) ▶ 감평가 130억 → 최저가 65억</td> </tr> </table>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평가 3억9천 → 최저가 2억7천	광산구 하남동 (근린상가) ▶ 감평가 62억 → 최저가 35억	서구 화정동 (주택) ▶ 감평가 1억9천만 → 최저가 1억2천	광산구 박호동 (주택) ▶ 감평가 4억4천 → 최저가 3억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평가 36억 → 최저가 16억	장성 동학면 (과수원) ▶ 감평가 8억2천 → 최저가 5억7천	나주 빛가람동 (식자재마트) ▶ 감평가 54억 → 최저가 30억	김제시 하동 (아파트 293세대) ▶ 감평가 130억 → 최저가 65억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평가 3억9천 → 최저가 2억7천										
광산구 하남동 (근린상가) ▶ 감평가 62억 → 최저가 35억										
서구 화정동 (주택) ▶ 감평가 1억9천만 → 최저가 1억2천										
광산구 박호동 (주택) ▶ 감평가 4억4천 → 최저가 3억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평가 36억 → 최저가 16억										
장성 동학면 (과수원) ▶ 감평가 8억2천 → 최저가 5억7천										
나주 빛가람동 (식자재마트) ▶ 감평가 54억 → 최저가 30억										
김제시 하동 (아파트 293세대) ▶ 감평가 130억 → 최저가 65억										

010-6670-9800

010-2614-9801